

2022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
성경의 핵심

메시지 10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영의 내적 느낌에 주의함으로
생명의 영의 법 안에서 생활함

성경: 롬 8:4, 6, 10-11, 28-29, 고전 2:9-10, 15, 고후 2:12-14

- I.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세 부분으로 된 우리의 온 존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기 위해 한 법, 즉 자동적인 원칙과 자연스러운 능력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 롬 8:2-3, 6, 10-11, 34.
- A.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부분들,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산되시며 몇 가지 법들이 되신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우리와 연합되시며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신다. 우리는 그분을 누릴 때마다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사람이다 — 롬 31:33, 히 8:10.
- B. 생명의 법의 기능에는 두 방면이 있다. (1) 우리를 신격 아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으로 형태지어 우리를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한다(롬 8:2, 29). (2)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온갖 종류의 기능들을 가진 지체들로 조성시킨다(엡 4:11-12, 16).
- II.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 A.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그분께 으뜸의 위치, 첫번째 위치를 드리고 그분의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의 생활 안에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 계 2:4-5, 골 1:18 하, 고후 5:14-15, 막 12:30, 고전 2:9-10, 시 73:25-26.
- B.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받아들인 바로 그 생명은 한 인격이고, 이 인격을 적용하고 누리는 길은 첫째 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모든 순간에 그분의 현재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그분을 새롭게 접촉해야 한다 — 요 11:25, 14:5-6, 딤후 1:14, 고후 5:14-15, 계 2:4-7, 골 1:18 하.
- C. “여러분 자신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어떤 길도 그보다 우세하지 않고, 그렇게 안전하고 풍성하며 누림으로 충만한 길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관심하지 마십시오.” — 야가서에서 묘사된 생명과 건축, 영문판 23-24 쪽.
- D.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분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요 14:21, 23).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저에게 보여 주셔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항상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 드려야 한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사랑 안에 지켜 주십시오! 당신 자신으로 저를 매혹시켜 주십시오! 저를 항상 당신의 사랑스러운 현재의 임재 안에 지켜 주십시오.”
- E. 주님의 회복은 첫째 가는 사랑, 곧 최고의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건축,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해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님을 먹는 것의 회복이다 — 엡 4:15-16, 계 2:4-5, 7, 22:14.

1. 교회 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분을 더 누릴수록 교회 생활의 내용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첫째 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2.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 가는 사랑을 떠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놓치고 예수님의 증거를 잃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우리에게서 등잔대가 옮겨질 것이다. 이 세 가지, 곧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증거가 되는 것은 함께한다 — 계 2:1-7.

III. 영의 내적 느낌에 주의하는 것이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속에서 활성화되기 위한 두 번째 요구이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은 로마서 8 장 6 절에서 볼 수 있으며, 이 구절은 우리가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 A. 하나님은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고전 15:45 하, 고후 3:17, 딤후 4:22, 고전 6:17), 자아는 우리의 생각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타락한 혼이고, 타락한 몸은 육체이다.
- B. 생각을 육체에 두는 것은 육체의 편을 취하고, 육체와 협력하고, 육체와 함께 서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은 영을 주의하고, 영의 편을 취하고, 영과 협력하고, 영과 함께 서는 것, 즉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 말 2:15-16.
- C. 생명과 평안을 아는 길은 영의 내적 느낌에 의한 것이다.
 1. 생명의 느낌은 만족과 강함과 신선함과 적셔짐과 빛비춤과 기름바름의 내적 느낌이다. 깊은 속에서 이 모든 항목들을 느낄 때, 그것이 생명의 느낌이고, 이 느낌은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확증한다.
 2. 평안의 느낌은 우리의 바깥 환경들에 있는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 혹은 위로, 조화, 안식, 기쁨, 해방 같은 내적 느낌이다.
- D. 우리가 육체의 편을 취할 때마다 우리는 죽음의 내적인 느낌, 즉 죽음의 의식을 갖는다. 우리는 불만족, 공허함, 약함, 낯음, 메마름, 어두움, 우울함, 다툼, 불일치, 불쾌함, 불편함, 고통, 속박, 슬픔을 느낀다. 죽음의 느낌은 우리가 육체에서 구출받아 영 안에서 살도록 강권하는 경고가 되어야 한다 — 롬 8:4, 1:9.
- E. 우리가 영을 따라 그 영에 의해 행하는가에 대한 시험은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내적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가 영과 혼을 구별하려면 이성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고 영의 내적 느낌을 관심해야 한다 — 말 2:15-16, 히 4:12.

IV. 우리가 영의 내적인 느낌을 주의하고 생명과 평안의 내적 느낌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유일한 움직임을 위해 몸의 머리이신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봉사에서 그리스도의 포로, 곧 자신의 바깥 환경 아닌 ‘나의 영 안에 있는 안식’의 여부에 지배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의 영은 바울의 존재의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었고, 그는 자신의 연합된 영에 의해 통치받고 지배받고 지시받고 움직이고 인도받았다 — 고전 2:15, 롬 8:16, 6:17, 고후 2:12-14.

- A. 오직 주 예수님만 추수의 주인이시다(눅 10:2, 요 4:35), 오직 그분만이 주인이시고 몸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결코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그분을 존중해야 한다. 오직 그분만이 머리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인도자이시다 — 엡 1:10, 22, 골 2:10, 고전 11:3, 마 23:8-12.
- B.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린 것은 어떤 결정이든 그 영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했다면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도 다른 이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얼마나 주님을 모독하는 것인가!
- C. 만일 내가 이렇게 했다면, 다른 이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보다 그들은 그저 내 말에 따라 행동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위치를 강탈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주님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 가장 큰 모독이다 — 벧전 5:3, 고후 4:5.
- D.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접촉하도록 도와야 한다. 젊은 형제자매들은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감동을 받아 운동에 참여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접촉은 결코 갖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주님의 인도에 관해 분명해질 때까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반드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 E.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캠퍼스로 가도록 인도하시지만, 여러분이 가는 것을 그분의 주권으로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운동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에 속한 문제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 F.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주님께 갈 수 없다는 공과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결국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어떤 형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유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 G. 어떤 사람에게도 어느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직접 주님께 가서 기도해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주님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며 우리는 모두 그분께 “주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라고 여쭙어야 한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 행 22:10.
- H.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갖는 모든 움직임에 관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직접 가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이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다른 이들을 위해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 I. * 각주 —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바울과 그의 소수의 동역자들에게서 볼 수 있다. 그 수는 열 명을 넘지 않는다(실라, 디모데, 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소스테네). 이 소수의 사람들은 가장 좁은 의미에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 바울의 소수의 동역자들 안에서는 모든 것이 바울을 통하여 조율되었고, 그들은 바울의 권위와 지시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였다.*
- J. 주님의 움직임을 위해 우리도 몸에 의해 균형잡힐 필요가 있다. 기도 후에 교통이 따라온다. 기도와 교통을 한 후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에 관해 분명해질 것이다.
- K.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지위를 강탈하고 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와 교통 없이 어떤 곳으로 이주한다면 우리는 시험과 고난과 박해가 올 때 흔들리게 될 것이다.
- L. 우리가 기도하고 교통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존중하고 몸을 존중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외적인 환경이 어떠한지라도 결코 자신의 움직임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 비교 골 2:19.
- M. 우리는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뜻과 인도라는 것에 대해 큰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죽을 준비가 될 것이다. 우리는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주님의 권위를 받고 강화될 것이다.
- N. 교회들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 즉 그 영과 몸을 관심해야 한다 — 엡 4:4 상.
 1.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그 영 안에 있는지와 몸의 유일한 하나를 돌보는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분명해야 한다.
 2. 그 영(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몸의 유일한 하나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회복 안에 지켜지는 것이다.